

대한민국 배드민턴, 수디르만컵 2연승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체코에 이어 캐나다를 꺾고 제19회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2연승을 달렸다.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배드민턴 대표팀은 28일(한국 시간) 중국 샤먼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4-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8강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30일 오후 6시 대만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잡아 B조 1위로 토너먼트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게임 남자 단식은 전현진(요비스)이 나섰지만 빅터 라이에 0-2(10-21 22-23)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한국은 2게임 여자 단식에 '서블록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을 출격시켰다.

안세영은 미셸 리를 2-0(21-16 23-21)으로 꺾고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안세영 승리에 힘입어 복식 경기에 돌입한 뒤 승리의 쾌거를 박았다.

강민혁(국군체육부대)-기동주(인천국제공항) 조가 출전한 3게임 남

캐나다 꺾고 4-1 승...8강 진출 유리

안세영, 2게임 여자 단식 잡아...승리 일조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지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는 27일부터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19회 세계혼합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하기 전 인터뷰하고 있다.

자 복식에선 케빈 리-타이 린드만 조에 2-1(17-21 21-14 21-19) 역전승을 거뒀다.

4게임 여자 복식은 김혜정(삼성생명)-공희용(전북은행) 조가 재출전한 캐서린 최 조를 2-0(21-19

21-3)으로 완파하면서 한국의 승리가 결정됐다.

마지막 5게임 혼합 복식은 이종민(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 조가 조나단 라이-크리스탈 라이 조를 2-0(21-8 21-13)으로 꺾었다.

특히 이종민은 1차전 체코전에 이어 2차전 캐나다전까지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두 경기 연속 출전해 승리를 선사했다.

이로써 한국은 캐나다를 4-1로 가볍게 누르면서 2연승에 성공했다.

수디르만컵은 IBF(현 BWF, 국제배드민턴연맹)의 이사였던 인도네시아의 딕 수디르만을 기념해 창설된 대회다.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되는 대회는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각 1게임씩 총 5게임 중 3게임을 먼저 잡으면 승리한다. 단 조별리그는 5게임을 모두 진행한다.

박 감독이 새로 부임한 한국 배드민턴은 2017년 제15회 대회 우승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뉴시스



전남도청, 전국종별펜싱 에베 단체전 우승 전남체육회와 전남펜싱협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전남도청과 해남군청, 전남체육고, 전남기술과학고가 총 금메달 2개와 동메달 6개 등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청은 여자 일반부 에베 단체전 우승을 달성했다. /전남체육회 제공

‘나주시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개막

영산강국가정원서 12월까지 8개 클럽 참가



나주시는 27일 영산강 저류지 4구장에서 '2025년 제23회 나주시장기 사회인 야구대회'의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김재익 나주시체육회장, 그리고 나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김민주 회장, 협회 임원진, 8개 클럽 소속 선수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생활체육 야구인들의 축제를 함께 했다.

김민주 협회장은 "올해 제2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가 지역 사회 야구 발전과 동호인 야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주를 알리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야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영산강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야

구장을 국가 정원 내부로 이전하고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7년에는 최적의 야구장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대회는 4월~12월까지 리그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총 8개 클럽의 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는 가운데 윤 시장은 직접 시구에 나서며 생활체육 야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나주시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원 조성과 함께 생활체육 공간, 휴식 공간, 관광 자원을 통합한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호 기자

‘정지용 극장골’ 전남드래곤즈, 김포 원정 1-0승

최봉진 골키퍼 선방...2위로 상승·선두권 유지



경기 막판 정지용의 극장골과 최봉진 골키퍼의 선방으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기며 시즌 순위 2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김포 솔더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9라운드 김포FC(이하 김포) 원정경기에서

누적으로 결장된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홈팀 김포가 볼 점유율에서 53%로 앞서며 슈팅 16개 중 8개가 유효슈팅이었으나 전남 골키퍼 최봉진의 선방에 막혔다.

반면 전남은 슈팅 4개 중 유효슈팅이 3개로 뒤졌으나 후반 추가시간 5분에 터진 정지용의 극장 결승골로 승리했다.

후반 90분 전남 정지용은 김포 위험존 중앙 왼쪽에서 수비수 한명을 제치고 슈팅한 볼이 골망을 흔들는 극장골을 만들어 내며 팀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로써 광주FC에서 올 시즌 전남에 합류한 정지용은 전남 데뷔골로 기록됐다.

오는 5월 4일 부천FC와의 남은 원정경기를 잘 마무리한다면, 이후 5월 11일 홈경기 개막전을 비롯한 홈경기가 많은 2로빈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위권 경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여자축구 이민아 NSL 오타와 1호골 주인공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간판선수인 이민아가 캐나다 여자축구 노던슈퍼리그(NSL) 오타와 레피드의 정규리그 1호골의 주인공으로 기록됐다.

오타와는 28일(한국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TD 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토론토와의 2025 노던슈퍼리그 1라운드에서 2-1승리를 거뒀다.

이민아는 선발 출격, 후반 33분 교체되기 전까지 총 78분을 소화했다.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